

이와미 가구라

가구라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고대 전통 중에서도 퍼포먼스와 춤이 융합된 형태를 말합니다.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무대 예술로도 알려진 이 가구라는 일본의 토착 신앙인 신도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일본 전국으로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. 화려한 의상과 풍부한 표정의 가면이 특징인 가구라는 전통적으로 가을 추수 즈음에 공연되었는데 이는 풍년이 든 것을 신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지역에는 각각 다른 형식의 가구라 양식과 수세기 동안 전해져 온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.

이와미는 오래 전부터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가구라가 성행했던 지역입니다. 이 지역에는 활발하게 활동 중인 130 개 이상의 극단이 존재하며 그 대부분은 일년 내내 공연을 선보입니다. 이와미 가구라는 의식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템포가 빠른 음악이나 춤, 정교한 소품, 신과 악마, 그리고 민간 설화를 간략하게 줄인 이야기 등이 특징으로 엔터테인먼트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폭풍의 신 스사노오가 머리가 8 개 달린 큰 뱀과 싸우는 이야기를 담은 ‘오로치(큰 뱀)’, 신화 속의 존재로 여겨지는 주아이 천황이 활과 화살을 사용해 한 쌍의 날개를 가진 요괴로부터 일본을 구한다는 이야기인 ‘진린’ 등이 있습니다.

이와미 가구라는 매주 토요일 밤 유노쓰의 다쓰노고젠 신사에서 상연됩니다.